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참여



손병석 한국철도(코레일) 사장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최우선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작됐다.

챌린지는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표어가

든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 3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손병석 사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교통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길 바란다"며 "철도 건널목 건너기, 열차 승하차 요령 등 어린이를 위한 철도 이용 안전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손병석 사장은 다음 참여자로 한국도로공사 김진속 사장,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 MBC 예능 '간이역'을 진행하고 있는 손현주 배우를 지목했다. ①

1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한 손병석 사장 2 한국철도공사 전경

